

경영 이슈 분석



일본의 경험으로 본 기업의 원화 강세에 대한 대응 전략

2006. 1

Executive Summary

1. 최근 달러화 약세 및 원화 강세의 배경 및 현황

- 급격한 원화 강세와 함께 아시아 각국의 통화가 동반 절상
 - 달러화 약세 및 원화 강세의 원인은 국내 외환시장의 구조적 급변동 요인, 국내적인 원화 강세 요인, 대외적인 글로벌 약세 요인으로 요약
- 원화의 상대적인 평가절상 추세로 인해 국내 수출 기업의 가격경쟁력에 큰 타격 우려
 - 엔화대비 절상 폭이 커 세계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전자, 통신, 석유화학 등의 분야가 상대적으로 막대한 영향 예상
 - 중국 위안화는 점진적인 평가 절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 경우 중국 경제의 긴축으로 이어져 대중 수출 절대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다만 제 3국 시장에서 중국제품과 경쟁하는 품목의 경우 가격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는 효과도 상존

2.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시 일본의 대응 사례

- 일본은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2~3년간 40%에 달하는 급격한 원화 강세에 따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를 경험
- (기업의 대응)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혁신, 부가가치 제고 및 비가격 경쟁력 강화, 생산설비의 해외이전 등으로 적극적인 대처
 - (비용절감) 생산시스템의 끊임없는 혁신으로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시도
 - (고부가가치화 및 비가격경쟁력 강화) 디자인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기능 향상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비가격경쟁력을 제고
 - (생산설비 해외이전) 원화가치 상승의 이점을 살려 생산설비의 적극적인 해외이전과 M&A를 추진하여 글로벌 경영체제를 구축

- (정부의 대응)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으로의 산업구조 개편,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 안정화, 수입 확대 등의 정책 대안을 마련
 - (내수 확대) 민간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감세정책으로 내수시장을 활성화
 - (공공투자 촉진) 주택 투자, 지역활성화 지원 등 공공사업의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실현
 - (수입 확대) 부품 및 원자재의 수입 확대로 제품 가격의 상승 요인을 억제하고, 무역마찰로 인한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도모

3. 기업의 대응 전략 및 정부의 보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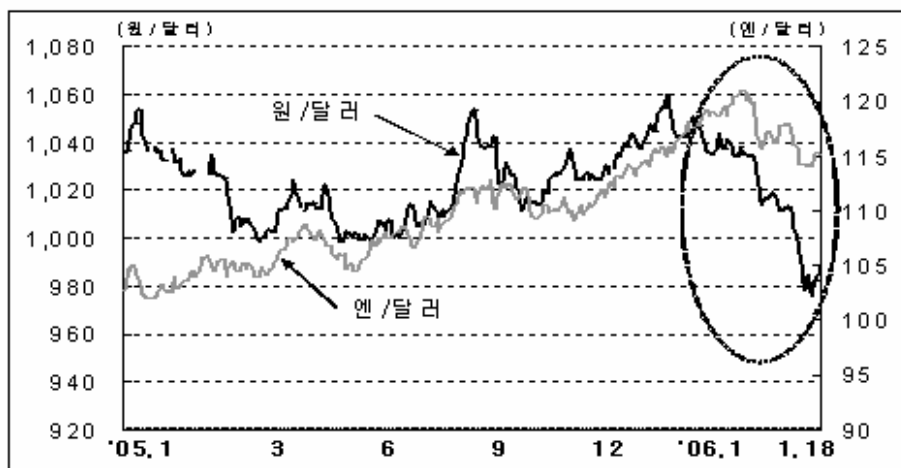
- (기업의 대응 전략) 원화 강세와 더불어 신3高(고유가, 고원화가치, 고금리)에 대비한 국내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대책이 필요
 - 단기적으로는 선물환, 선물환변동보험 등 금융시장의 선진 환위험 관리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글로벌 아웃소싱 등으로 기업 역량을 재구축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대한 민감도를 감소
 - ⇒ 궁극적으로 신3高 적응력 강화가 가능
- (정부의 보완 과제) 환율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
 - 내수 활성화 및 고용 안정 대책 마련
 - ⇒ 적극적인 내수시장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민간소비를 촉진
 - ⇒ 재정 지원을 통한 공공투자 촉진으로 고용 불안정 해소
 - ⇒ 당면 과제로 부동산시장의 잠재적 불안 요인을 해소
 - 금융기관의 외환 거래 자유화로 외환시장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구조적 환율 급변동 요인을 해소
 - 장기적으로는 현재 논의 중인 동북아 환율 공조 체제 조성 방안 노력

1. 최근 달러화 약세 및 원화 강세의 현황 및 영향

-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1월 18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988원을 기록함
 - '05년 12월 중순부터 시작된 원/달러 환율의 급락세가 '06년 들어 지속되면서 1개월 사이 약 4.6% 절상됨
 - '05년 4월 25일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초로 900원대에 진입한 바 있으나 미달러화 강세 기조가 유지되면서 곧 상승세로 전환되기도 함
 -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 하락을 예상했던 투자은행을 포함한 주요 역외 세력의 미달러화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함

- 최근 급격한 달러화 약세 및 원화 강세의 원인은 구조적 급변동 요인, 국내적인 원화 강세 요인, 대외적인 글로벌 약세 요인으로 요약됨
 - (구조적 급변동 요인) 국내 외환시장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국내 요인 뿐 아니라 해외 요인에 의한 환율 급변동 가능성이 큼
 - (국내적인 원화 강세 요인) 최근 달러 공급 우위와 심리적 '1월 효과' 등에 의해 원화 환율의 하락 압력이 강화됨
 - (대외적인 글로벌 달러 약세 요인) 미 금리 인상 종결 가능성, 유로와 일본 등의 금리 상승 가능성 등으로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로 반전됨

< 최근 환율 변동 추이 >



- '06년 들어 달러화의 급락으로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통화가 동반 절상되고 있으며, 특히 원화의 절상 폭이 두드러짐
 - '05년 초와 대비해서는 일본의 경우 12.1% 평가절하 되었는데 반해, 한국은 오히려 4.6%의 평가절상을 보임
 - 위안화 역시 지난 해 7월 한차례 평가절상 이후 점진적인 평가절상이 진행 중이며,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임

< 주요국 통화의 미 달러화 대비 변동폭 >

	한국 (원)	일본 (엔)	중국 (위안)	싱가포르 (달러)	대만 (달러)	태국 (바트)	EU (유로)
'05년초 대비 현재	4.6%	-12.1%	2.6%	0.6%	-0.8%	-1.5%	10.1%
'06년초 대비 현재	2.4%	2.4%	-	2.0%	2.1%	3.8%	-2.2%

주 : 현재는 '06년 1월 18일. 플러스(+)는 평가절상, 마이너스(-)는 평가절하를 의미

- 원화의 상대적인 평가절상은 국내 수출 기업의 가격경쟁력에 큰 타격 예상
 - 특히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전자, 통신, 석유화학 등의 분야는 일본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산업으로 '05년부터 이어져온 엔화 대비 상대적 절상 폭이 매우 커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수출비중이 21.8%로 이미 미국(14.6%)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제 1 수출 대상국이며, 결국 중국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위안화절상은 중국 경제의 긴축으로 이어져 대중 수출량 감소와 중국내 현지 생산-판매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의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 다만 제 3국 시장에서 중국제품과 경합하는 품목의 경우 가격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는 효과도 있음

< 우리나라의 주요국별 수출 비중 >

(단위: %)

	2003년	2004년	2005년(1~11월)
중국	18.1	19.6	21.8
미국	17.7	16.9	14.6
일본	8.9	8.5	8.4

자료 : 산업자원부

- 원/달러 환율 하락시 전체 수출 감소율은 자동차, 석유화학 업종이, 채산성 악화율은 자동차, 전자 업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원/달러 환율 5% 하락시 업종별 영향 >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전자	통신	석유화학
수출 감소율	1.2%	0.1%	0.1%	0.5%	0.5%	1.3%
채산성 악화율	5.0%	3.0%	3.0%	5.0%	3.0%	1.0%

자료 : 산업연구원

- 이와 같은 환율 변동 위험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은 환위험 관리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며, 특히 중소기업은 더욱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환위험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 35.9%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심각해 내규에 환리스크 관리를 규정조차 하지 않은 기업이 67.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환위험 관리 관련 규정 보유, 외환익스포저 관련 한도 설정, 전담인력 확보 등의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들의 내부 환위험 관리 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내기업의 환위험 관리 현황 >

(단위: %)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 실행	64.1	78.2	54.2	
환위험 관리 규정 보유	48.1	63.3	32.5	
외환익스포저 관련 한도 설정	37.2	49.4	24.7	
전담 인력 확보	타 업무 겸임	56.1	45.6	66.6
	2명 이하	26.1	30.4	21.8
	3명 이상	17.2	24.1	10.3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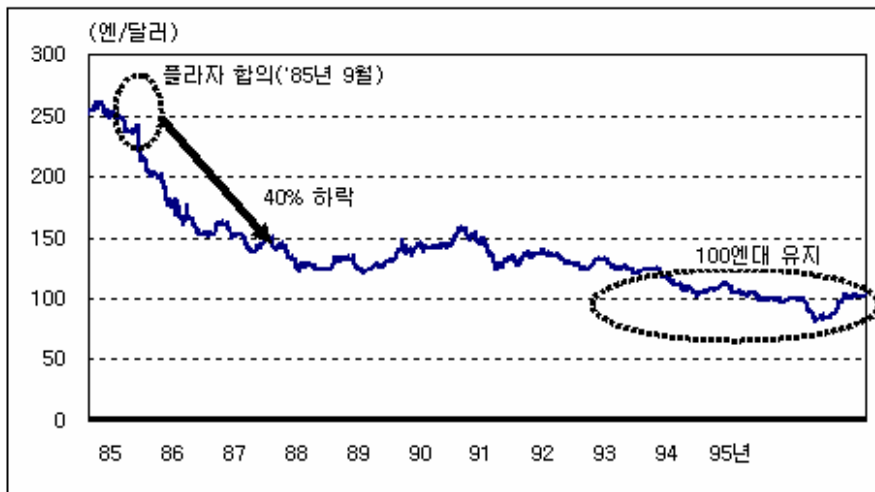
2. '플라자합의' 이후 엔高시 일본의 대응 사례

- 수차례 엔화가치 상승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 특히 '85년 '플라자합의' 이후의 엔高 정책에 따른 정부, 기업 차원의 대응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함

□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의 엔화가치 상승

- 일본은 '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엔화가 40%이상 절상되어 급격한 엔화 강세를 경험함
 - 미국의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달러화 가치 하락의 합의(플라자 합의)에 따라, 엔화는 240엔대에서 일시에 220엔대로 급등함
 - 이후에도 엔화강세가 지속되어 '86년 160엔대, '87년 5월에는 140엔대로 엔화가치가 급상승하여, '플라자합의' 이전 대비 40% 이상 절상됨
 - '90년대 들어서면서 엔/달러가 100엔대 정착이 장기화되었으며, '95년 한때 79엔대까지 또 한차례 엔화가치의 급상승을 경험하기도 함

< 플라자 합의 이후 엔/달러 환율의 변동추이 >



* 플라자합의(Plaza Agreement 또는 Plaza Accord)란 '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의 플라자호텔에서 G5 경제선진국 재무부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의 모임에서 발표된 환율에 관한 합의를 말함. 이에 따라 일본은 급속한 엔高현상으로 인해 저금리정책이 지속되었으며, 이는 부동산이나 주식의 투기를 가속화시켜 거품경제를 초래하였음

- 급격한 엔고가 시작된 직후,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폭은 급감하였음
 - 엔고의 진행에 따라 무역흑자의 폭은 40% 이상 대폭 축소되었으나, 이후 엔고에 대한 대응 효과가 나타나면서 무역수지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함

<플라자 합의 '이후의 엔/달러 환율*과 무역수지의 추이>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엔/달러 환율	200.6	160.1	122.0	125.9	143.4	135.4	125.3	124.7	111.9	99.8	102.9
전년 대비	-	-20.2	-23.8	3.2	13.9	-5.4	-7.5	-1.0	-10.3	-10.8	3.1
무역수지* (억 달러)	259	242	161	148	158	136	161	196	173	147	127

주: 환율은 연말종가 기준, 무역수지는 엔화표시의 수출입 차액을 연말종가환율로 환산

□ 일본 기업의 엔고 대응 전략

- 엔고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에 대하여,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혁신, 부가가치 제고 및 생산설비의 해외이전 등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꾀함
- (비용절감) 생산시스템의 끊임없는 혁신으로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시도함
 - 수출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설비의 최소화, 작업공정의 간소화 등을 통한 운영비용의 절감에 주력함
 - 생산부문과 판매부문의 연결성을 포함한 기업의 가치사슬 전체의 효율성과 스피드를 제고하는 혁신적 경영체제 확립을 추구함
- (고부가가치화 및 비가격경쟁력 강화) 엔고에 따른 가격상승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제품의 부가가치 향상으로 비가격 경쟁력을 높여 매출증대에 주력함
 - 제품의 디자인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기능 향상을 추구하여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서 엔고에 따른 가격상승의 채산성 악화를 극복함

- 품질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경쟁타사와의 차별화를 추구하는 한편, 글로벌 브랜드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함
- (생산설비 해외이전) 엔화가치 상승의 이점을 살려 생산설비의 적극적인 해외이전과 M&A를 추진하여 글로벌 경영체제를 구축함
 - M&A를 통해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과 해외영업망의 확장에 주력함
 -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을 통하여 원가절감뿐만 아니라, 현지시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개발 노력을 지속함

□ 엔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적 대응

-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으로 산업구조의 개편을 추진하고,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 안정화 및 수입 확대 등의 정책 대안을 마련함
- (내수 확대) 적극적인 내수시장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상대적인 수출 비중의 감소를 유도함
 - 적극적인 내수시장 개척에 주력함으로써 경기침체의 예방을 도모하는 한편, 세계 시장에서의 무역불균형으로 인한 이미지 향상을 도모함
- (공공투자 촉진) 주택 투자, 지역활성화 지원 등 공공사업의 투자를 확대함으로서 고용 안정을 실현함
 - 민간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감세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엔화 불황에 따른 고용불안정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함
- (수입 확대) 부품 및 원자재의 수입을 늘림으로서 엔화에 따른 제품 가격의 상승 요인 억제를 추구함
 - 고부가가치의 핵심부품을 제외한 일반 원자재의 수입을 확대함으로서 무역마찰로 인한 대외적 이미지 개선과 제품가격의 상승을 억제함

< 엔高 대응 사례 : 캐논(Cannon)社 >

- 수출 비중이 74%를 넘고 있었던 캐논은 '플라자합의'로 인해 엔화가치가 급등하면서 수익성의 급격한 악화를 가져옴
 - 1986년 캐논의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69%나 감소한 131억 8천만 엔에 그치는 저조한 실적을 보임
 - 전사적인 경영 혁신 노력을 기울인 결과 거시 경제 환경 변화와 동조적으로 엔高 이전 수준의 실적을 회복함

- 캐논은 환경 변화에 유연한 스피드 경영 체제, 전사적인 원가 절감 추진, 해외 생산설비 이전 등 다각적인 경영 혁신 노력을 기울임
 - (스피드 경영) 1986년 4월 캐논은 달러 지역을 향한 가격 인상, 판매량 확대, 철저한 원가절감 대책과 아울러 수주와 재고현황을 일일 단위로 집계하는 스피드체제 구축을 추진함
 - (원가절감) 1987년에는 1달러=150엔 시대를 노린 '챌린지 150'이라는 기업 체질의 강화 운동을 필두로 임원이나 관리직의 임금 삭감, 부품 제조 협력업체에의 가격인하 요청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원가절감 대책을 마련함
 - (고부가가치 상품) 당시 캐논의 주력 상품은 복사기, 팩시밀리 등으로 품질 혁신, 디자인 강화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제품 경쟁력을 배가시킴
 - (생산설비 이전) 미국 달러에 연동하고 있는 대만으로부터 부품수입 비율을 늘리는 한편, 해외 합자회사의 설립을 적극 추진함
 - ⇒ 1985년 한국에 '롯데 캐논', '88년 말레이시아에 '캐논 옵트 말레이시아', '89년에는 중국 다롄에 '가능대련변공설비'를 설립
 - ⇒ 엔高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어 1달러=100엔 시대가 도래하자, 80%였던 수출 비중을 50%로 감소시키는 한편, 해외 현지생산 비중을 25%에서 50%로 올리기 위한 소위 '211 구상'(제품 생산을 일본:미국:유럽 = 2:1:1 의 비중으로 유지)을 실천

3. 기업의 대응 전략 및 정부의 보완 과제

□ 기업의 대응 전략

- 원화 강세와 더불어 신3高(고유가, 고원화가치, 고금리)에 대비한 국내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대책 마련이 요구됨
 - 단기적으로는 선물환, 선물환변동보험 등 금융시장의 선진 환위험 관리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글로벌 아웃소싱 등으로 기업 역량을 재구축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대한 민감도를 감소시킴
- ⇒ 궁극적으로 신3高 적응력 강화가 가능

< 기업의 환위험 관리 전략 >

구분	내용	세부 전략	활용 사례
단기 전략	금융기법 활용	- 선물환 - 선물환변동보험 - 옵션, 스왑 등	- 휴맥스 - 수출보험
장기 전략	기업 역량 재구축	- 결제 수단 다양화 - 비용 절감 -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 글로벌 아웃소싱 - 선별적 해외투자	- NEC - 아이와 - 빅터

○ 단기적 대응 전략

- 선물환을 활용한 적극적 환위험 헷지 전략
 - 매도 포인트의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쉬워 헤지 포지션으로부터 손실 발생 가능성이 적은 범위 선물환(Range Forward)을 활용함
 - 제로비용 범위 선물환(Zero-Cost Range Forward)의 경우 원가를 범위 선물환의 한쪽을 택해 나머지 부문만큼은 기업의 이익이 될 수 있음
- ⇒ 거래 비용이 적어 가장 많이 활용

< 선물환을 이용한 환위험 헷지 거래 사례 >

- 수출계약과 동시에 대금 입금 예정일(3개월 이후)과 비슷한 시기의 달러선물계약 매도
- 대금 수취시 원화 강세로 인한 환차손, 달러선물 매도 계약으로 보상 (수출에 따르는 채산성 확보)

< 선물환을 이용한 환위험 헷지 >

구분	기초 거래(수출대금 회수)	헷지 거래(달러선물 매도)
거래규모	50만 달러	달러선물 10계약 매도
계약일	환율 : 1,313.2원	환율 : 1,323.0원
대금수취일	환율 : 1,174.8원	환율 : 1,175.0원
손익	환차손 : 69,200,000원	환차익 : 74,000,000원
결과	환차익 : 4,800,000	

- 정책 금융인 선물환변동보험을 활용한 소극적 환위험 헷지 전략

- 선물환변동보험이란 기업들이 제품을 수출한 후 3~6개월 정도 후에 대금을 받는 결제 구조로 인한 환율 변동 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금융 상품임
- 산업자원부는 '06년 중 수출보험 공급 규모를 총 8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함('05년 대비 약 28% 증가)

< 환변동보험 실적 추이 >

	2004년	2005년	2006년
수출보험 인수 실적	63조원	73조원	84조원
수출보험 활용 기업 수	4,799개사	5,142개사	?

자료 : 한국수출보험공사

- 고전적 대내외 관리기법을 통한 환위험 헷지 전략

- (대내적 관리기법) 외부와의 별도 헷지 없이 내부적인 재무관리 과정에서 의 본원적, 사전적인 환관리 기법임

- ⇒ 상계(Netting), 매칭(Matching), 리딩(Leading)/래깅(Lagging), 자산부채 종합관리, 가격정책, 환차손준비금(exchange loss reserve) 적립 등
- (대외적 관리기법) 환위험손실 방지를 위해 외부적 수단을 사용함
 - ⇒ 옵션, 스왑, 합성 파생상품 등
- 국내 기업들은 환위험 헷지를 위해 대내적 관리기법(47.2%)과 대외적 관리기법(52.8%)을 대략 절반 정도씩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기업의 환위험 관리수단 비중 >

(단위: %)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내적 관리	47.2	50.3	43.7
매칭(matching)	16.8	19.5	13.7
리딩과 래깅(leading & lagging)	16.1	15.6	16.8
네팅(netting)	6.6	7.4	5.6
가격정책	7.7	7.8	7.6
대외적 관리	52.8	49.7	56.3
선물환거래	20.1	20.3	19.8
단기금융시장	14.7	10.4	19.8
통화스왑/선물/옵션	12.1	15.1	8.6
수출보험	5.9	13.9	8.1

자료 : 금융감독원

○ 장기적 대응 전략

-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과 함께 결제 수단의 다양화를 추구
 - 유럽 및 BRICs 등 수출 다변화 노력과 함께 유로화, 엔화 등 결제수단을 다변화하여 달러 결제 의존도를 축소함
 - 특히 중국과의 교역이 증대됨에 따라 결제 통화를 기존의 달러에서 위안화나 원화로 계약하는 비중을 늘릴 수 있어야 함
 - (사례) 디지털방송 셋톱박스 전문기업으로 국내 1세대 벤처기업인 휴맥스

는 수출비중이 높은 유럽 지역의 수취대금을 유로화로 전환하고, 선물환 계약을 통한 헤징을 실시함으로써 환차손 관련 위험을 적극적으로 회피함

- 전사적 차원의 포괄적 비용 절감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노력

- (비용 절감) 엔화에 대한 일본기업의 비용절감 노력은 주로 생산과정의 혁신에 초점을 두었으나, 오늘날엔 생산부문과 마케팅부문을 포함한 전사적 차원 및 자사와 협력업체의 관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비용절감이 요구됨
-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구조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및 사업구조의 혁신 등의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함
- (사례) NEC는 제품생산의 리드타임 단축을 위한 SCM(총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기제품의 판매차질로 인한 기회손실을 최소화하였으며, 샤프는 LCD기술의 개발과 함께 타사와 차별화된 디자인과 브랜드 구축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에 주력함

- 글로벌 아웃소싱과 선별적 해외투자를 통한 사업구조 재구축

- 먼저 해외 생산거점의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한 현지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이후 해외유망기업의 M&A 및 해외투자를 통한 글로벌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함
- (1단계 : 글로벌 아웃소싱) 성급한 M&A 및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보다는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한 사업구조 전환이 필요함
 - ⇒ 생산거점시설의 해외이전은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및 국내 고용환경의 불안정과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여 내수시장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함
 - ⇒ 환율 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2단계 : 해외 투자) 위안화 변동에 대비하여, 중국의 해외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 해외투자가 필요함
- (사례) 아이와, 빅터 등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우 인건비 절약을 목적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여, 현지 부품 조달을 추진함

□ 정부의 보완 과제

- 정부는 환율 벼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임
 - '80년대 엔화 환율이 달러당 200엔에서 100엔으로 급락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제가 완전히 체질을 바꿨으며, 결국 국가 경쟁력 향상이 열쇠임

- 내수 활성화 및 고용 안정 대책 마련
 - 적극적인 내수시장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민간소비를 촉진
 - ⇒ 이를 위해 과감한 감세정책을 실시
 - 재정 지원을 통한 공공투자 촉진으로 고용 불안정 해소
 - 당면 과제로 부동산시장의 잠재적 불안 요인을 해소

-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외환 거래 허용을 통해 구조적 환율 급변동 요인을 해소
 - 원화 환율의 급등락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
 - ⇒ 예컨대,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외환 거래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외환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어야 함
 - ⇒ 국내 금융기관들이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외환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논의 중인 동북아 환율 공조 체제 조성 방안 노력을 기울임

연구위원 백흥기 (02-3669-4124, hkback@hri.co.kr)

연구위원 허만울 (02-3669-4127, myhur112@hri.co.kr)